

제목

최근 위안화 환율 동향 및 현지 평가

I

## 위안화 환율 동향

□ 위안화 대미달러 환율은 연초 이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 약화,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, 부동산 부진 등에 따른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 둔화 등으로 상승세(7.24일, 7.2760위안/달러)를 지속해왔으나,

7월말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에 따른 엔화 강세, 美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연준의 9월 금리인하 기대 강화 등으로 미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위안화가 큰 폭으로 강세 전환하여 7.14위안을 하회(8.5일, 7.1385위안/달러)

○ 그동안 중국 외환당국은 경제 펀더멘털 및 정책의지를 감안하여 대체로 전일 증가대비 평가절상된 기준환율을 고시하는 반면 시장에서는 위안화 약세를 기대함으로써 인민은행의 고시환율과 시장환율간의 괴리가 확대되었으나,

8월 이후 시장환율이 급락하면서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

## 위안화 환율과 달러지수 추이



자료 : WIND

위안화 시장환율과 고시환율 차이<sup>1)</sup>

주 : 1) 차이(기준환율-시장환율, 우축)  
자료 : WIND

작성자 : 북경사무소 김승주 차장

## II

## 현지 평가

□ **시장참가자들**은 미 연준의 9월 금리인하가 확실시됨에 따라 **위안화 환율**의 상승 추세가 진정되고 **하락 전환**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, 이러한 추세가 **당분간 이어질** 것으로 **예상**

○ 또한 **인민은행**이 연준의 금리인하 시 내외 금리차에 따른 위안화 약세 우려가 줄어들에 따라 경기부양, 물가목표 달성 등을 위해 **완화적 통화 정책**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,

**외환시장**의 **안정**을 위해 환율의 쏠림현상을 방지하면서 **위안화 강세 속도**를 적절히 **조절\***해나갈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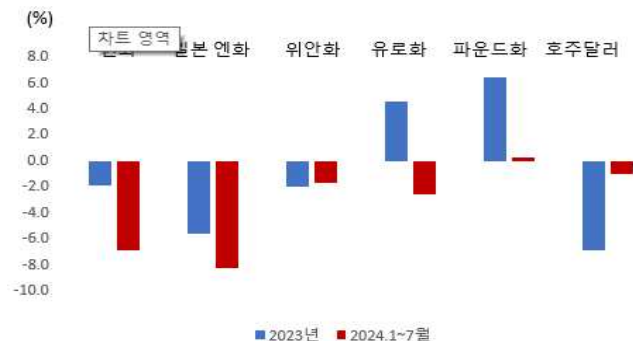
\* 위안화 강세로 중국기업의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, 수입물가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등이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

□ 한편 일부 **시장전문가**들은 작년 5월 미달러화 대비 위안화가 7위안을 상회한(破七) 이후 다시 7위안 아래로 내려가기 보다는 **당분간 7.0~7.1위안 수준**에서 **횡보**할 것으로 **전망**

○ 이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①중동 정세 악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따른 **안전자산 선호**, ②**중국 경제**의 **더딘 회복속도**, ③중국 정부의 반간첩법 도입, 데이터 국외이전 관리 및 정보보호 강화 조치 등으로 **외국인의 중국 투자기피 현상\*** 지속 등이 **위안화 강세**를 **제한**하는 **요인**으로 작용하는 데 주로 기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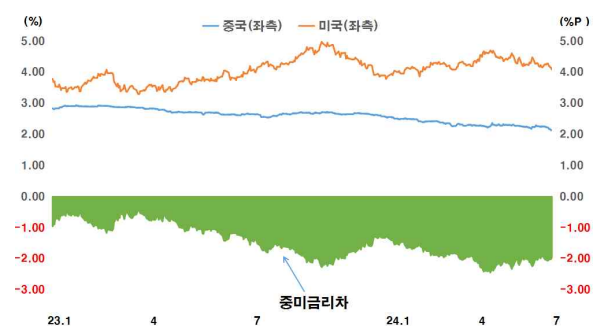
\* 중국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외국기업의 중국내 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이중적인 잣대로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을 초래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심리가 위축

### 미달러 대비 주요국 환율 변동<sup>1)</sup>



주 : 1) 절상(+), 절하(-)율(%)  
자료: WIND

### 중국과 미국의 국채금리차(10년물)



자료: WIND